

매일 만나

2023. 4.



"QT 매일 만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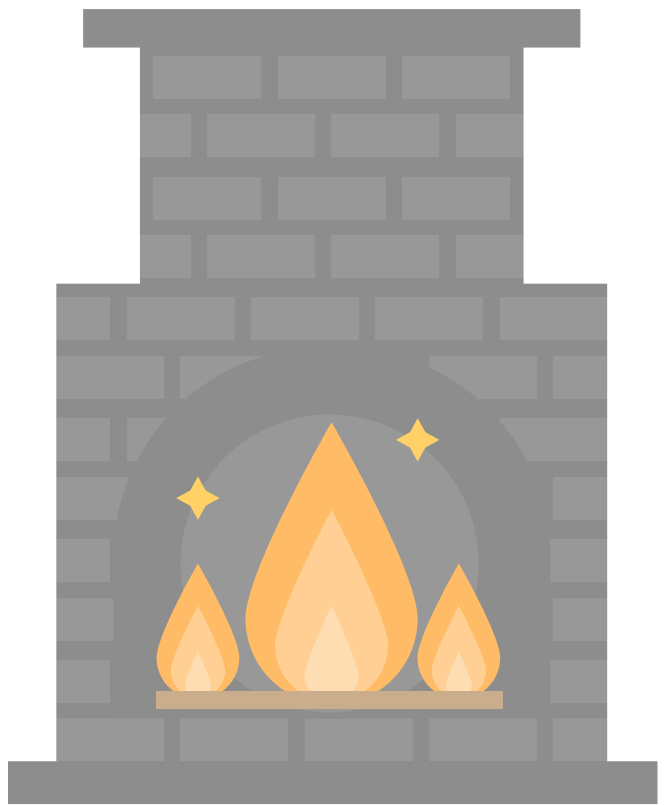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4

2023 APR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윤 2,11
기관법 릴레이 기도 1일(토) - 30일(주일)
소망동산 방문의 날

2

종려주일
전반기 세례식
5-6남전도회 헌신예배

3

4·3희생자추념일
고난주간(-8)
고난주간 특세 3일(월) - 7일(금)

4

윤 2,14

5

식목일·청명

6

한식

7

보건의 날
예비군의 날
성금요일 / 고난주간 생환식

8

윤 2,18
원주 LMTC 16기
겨울학기 종강

9

부활절
부활절 감사예배 / 성찬식
부활절 칸타타 / 새제자 간증
평사회·전도회 연합예배회 / 재직회

10

윤 2,20

11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호스피스 집중지역주간
11일(화) - 14일(금)

12

윤 2,22

13

윤 2,23

14

윤 2,24

15

윤 2,25

16

윤 2,26
새가족부 릴레이
복음전도대회②

17

윤 2,27

18

윤 2,28
연합종보기도

19

4·19혁명기념일

20

장애인의 날·곡우

21

과학의 날

22

정보통신의 날

23 30

3,4
교구찬양 율동축제
장기당회
새가족 수포식

24

3,5

25

법의 날

26

3,7

27

3,8

28

총무공이순신탄신일

29

3,10
어린이꽃잔치



Holy Bible survey

히브리서

1. 저자와 기록 시기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분명한 주장이 없다. 저자는 독자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독자들 역시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5:11-12, 6:10, 10:32-34, 13:23-24). 하지만 이 책이 널리 회람되는 사이에, 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졌다. 이 책의 저자에 관한 교부 전승은 초기부터 견해가 나뉘어져 있었다. 동방 교회는 이 책에 담긴 신학 사상의 유래를 바울로 보았지만, 저는 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서방 교회는 동방 교회 안에서 이 책이 널리 읽히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가 사도일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인정했고, 결국 바울이 이 책의 저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한 의문은 다시 제기되었고, 오늘날 이 책을 바울 서신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책의 기원과 관련된 다른 특징들처럼,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 또한 불확실하다. 원저자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다(2:3-4). 회심 이후, 이전에 경험한 고난의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로(10:32-34)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5:12). 그들에 대한 박해가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2:4).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작 연대를 60년대 중엽으로 잡는 것이 가장 타당해보인다.

2. 정경성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초기에 이견이 있었으며, 이는 당연히 이 책이 정경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2세기 말 서방 교회에서 히브리서는 무라토리 정경(Muratorian Canon)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동방 교회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 책은 여덟 편의 바울 서신과 함께 중요한 초기 파피루스 사본(P46)에 포함되어 있었다(주후200년경). 이 책의 명백한 정통성과 동방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결국 서방에서도 히브리서의 정경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다.

3. 주요 주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준다는 점이다. 앞선 시대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이제는 그분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계시하셨다(1:1-2).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의 탁월성을 주장하며, 성령이 조명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구약을 근거로 삼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3:7, 9:8, 10:15). 이를 위해 저자는 구약을 인용한 뒤 몇몇 핵심 단어를 설명하며, 문맥으로부터 그 단어의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낸다(2:8-9, 8:13, 10:8-10).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자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최종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신자들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이것은 구약에서 기대했지만, 결코 성취하지 못했던 현실이다. 히브리서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와 만물의 회복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은 하늘로 높이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제들에 기초하여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으며, 붙들어야 한다고 설득한다.

4. 개요

- I. 머리말: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신 아들(1:1-4)
- II.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아들(1:5-2:18)
 - A. 높임받은 왕적 메시아이신 아들(1:5-14)
 - B. 경고: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라(2:1-4)
 - C. 예수와 인류의 운명(2:5-18)
- III.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아들(3:1-5:10)
 - A. 예수와 모세(3:1-6)
 - B. 경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3:7-4:13)
 - C.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시는 대제사장 예수(4:14-5:10)
- IV. 핵심 해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아들(5:11-10:39)
 - A. 서론적 권면: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5:11-6:20)
 - B.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7:1-28)
 - C. 하늘에 계신 더 나은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8:1-13)
 - D. 하늘 성도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9:1-28)
 - E. 해설의 결론: 옛 제사와 새 제사의 대조(10:1-18)
 - F. 결론적 권면: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10:19-39)
- V. 분투 속에서 필요한 믿음과 인내(11:1-12:13)
 - A.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11:1-40)
 - B. 아버지의 징계인 고난을 견디라(12:1-13)
- VI. 마지막 경고와 공동체의 삶에 관한 지침(12:14-13:21)
 - A. 마지막 경고: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12:14-29)
 - B. 공동체의 삶에 관한 지침(13:1-21)
- VII. 맺음말: 마무리 인사(13:22-25)

01

토요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2-16

새찬송가 491장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엡3:12)



12~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Robertson, Morris).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녀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게 합니다(Hewitt, Morris).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습니다(Bruce, Robertson).

14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의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므로 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사역의 탁월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Hewitt).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유한성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가 행하신 모든 행위와 약속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Hewitt).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담대히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02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히5:1-10

새찬송가 94장

- 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 2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 3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 하나라
- 4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 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 암송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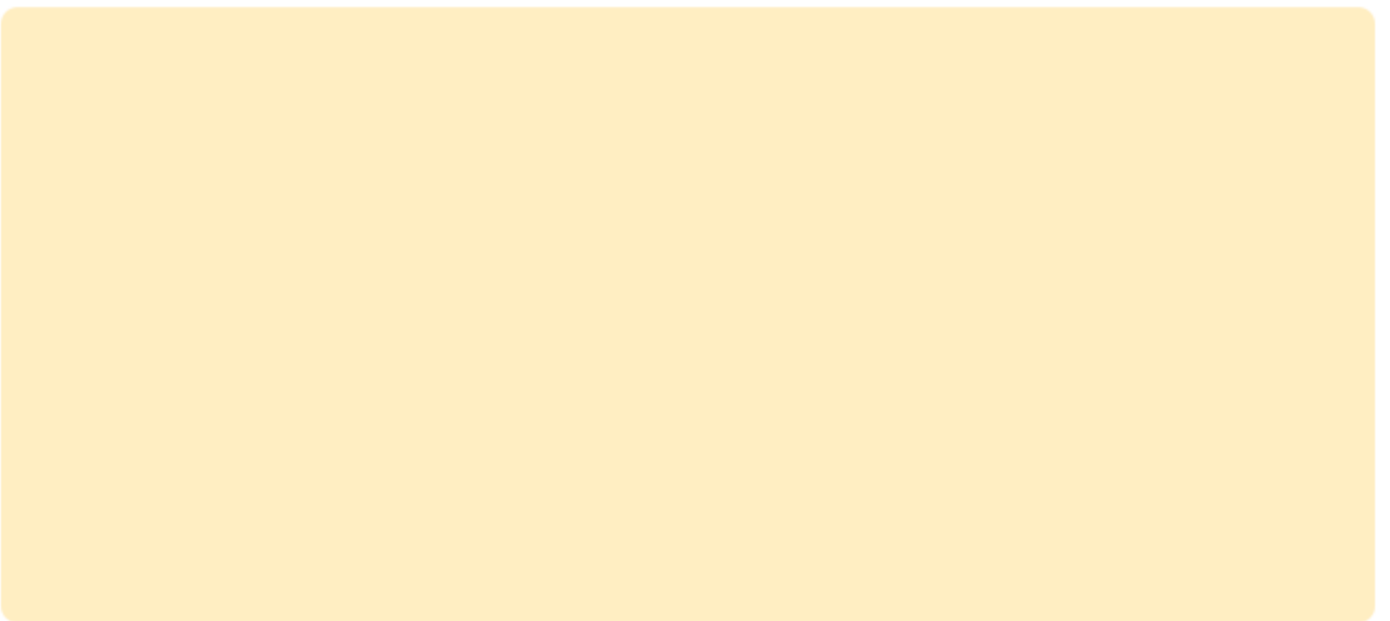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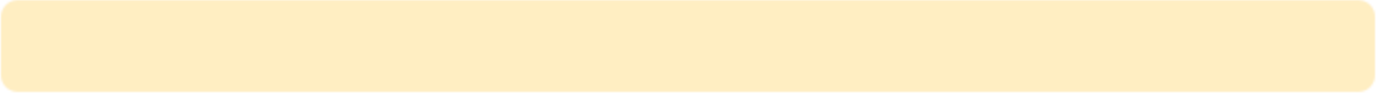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1~10절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6절) 그리스도께서 율법하에 있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약속의 은혜에 의한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Hewi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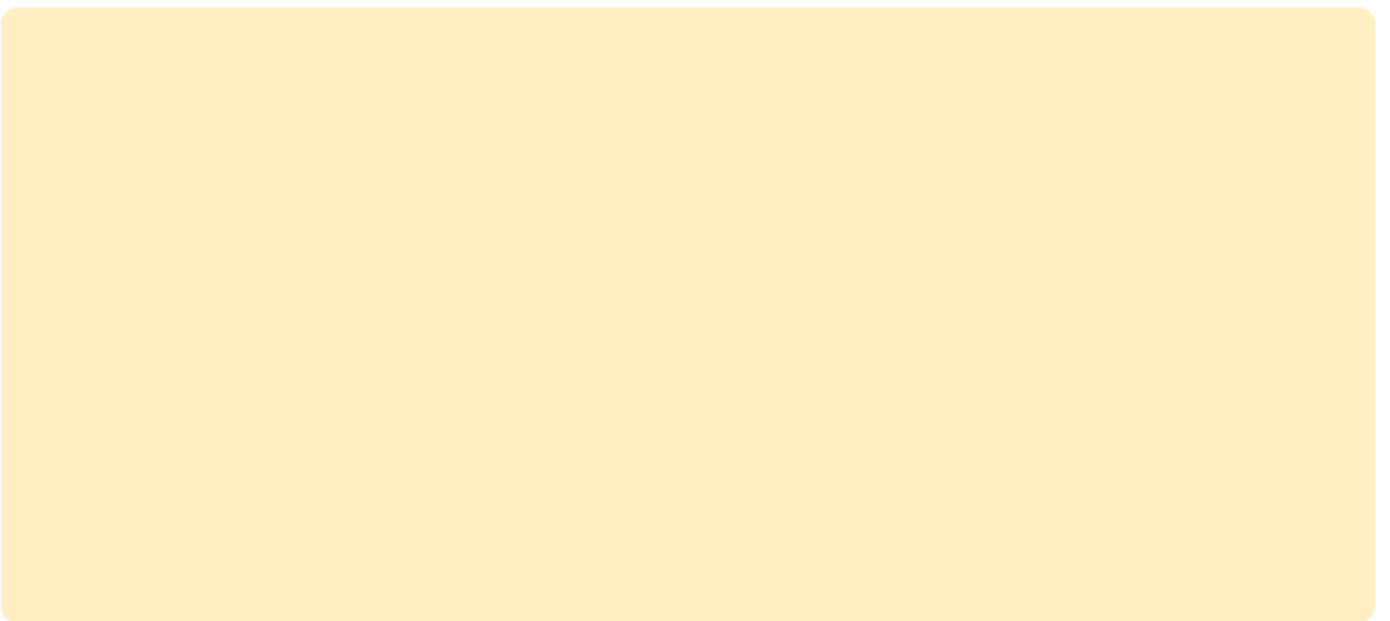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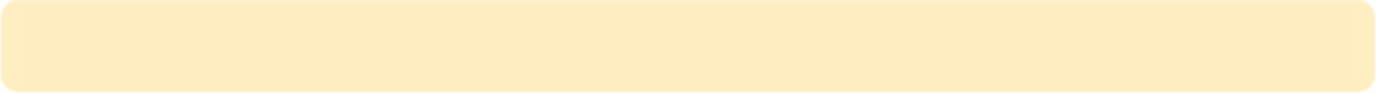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순종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03

월요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히5:11-6:3

새찬송가 435장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말씀 암송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 1:28)



5:11~14절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유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상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미숙하여(Riggenbach, Schrenk) 옳은 것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의'에 관향 원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Robinson, Spicq, Owen).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Hughes), 계속하여 돌봄과 위로만을 바라며, 작은 시험과 고난에도 크게 넘어지고 낙심하여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성한 어른은 말씀의 연단 속에서 계속하여 성숙해집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범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6:1~3절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로 완전 곧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합니다(Lane).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04

화요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6:4-12

새찬송가 315장

- 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 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 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 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 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6:10)



4-8절 배교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

이 단락은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 이는 이 단락이 앞 단락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저자는 본 단락을 통해 만일 수신자들이 장성함에 이르도록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배교할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저자는 또한 수신자들 중 그 누구라도 일단 배교할 경우 다시는 회개할 수조차도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직면한 배교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한다. 이 단락이 문법적으로 조건적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직설법'만 사용된다는 사실은 저자가 단지 가상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함을 보여준다.

9-12절 경고에서 격려로

앞 단락에서의 경고가 심각함에도 저자는 수신자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장성해 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너희에게는'이라는 표현은 경구 구절에서 묘사된 자들의 상태가 당장 수신자들의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확신을 밝힘으로써 뿐 아니라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앞 단락에서 드러났던 자신의 경고의 신랄함을 사랑이 넘치는 목회적 관심으로 균형 맞추고 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05

수요일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히6:13-20

새찬송가 314장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히6:19)



13-20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본 단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다. 앞 단락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구원을 향해 나아갈 것과 약속받은 것들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이러한 격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실례를 통해 보다 확고해지게 된다. 저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맹세에 의해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러한 확실성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극심한 시험까지도 능히 인내함으로써 그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저자는 앞에서 자신이 다루고자 했던 멜기세덱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하신 약속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약속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이 약속을 확고히 이루신 것이다. 목회적 단락의 이와 같은 결론은 이제 7장에서 전개될 멜기세덱에 관한 가르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06

목요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히7:1-10

새찬송가 218장

-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 2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 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 4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 5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 6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 7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 8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 9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 10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말씀 암송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히7:10)



1-3절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무런 상세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던 저자는 이제 멜기세덱과 관련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설명들조차도 신비스런 것들로서 원래 역사적 상황을 초월하여 영적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칭호들은 창세기 14:18로부터 직접 인용된 것들이다. 왕권과 제사장직의 이와 같은 결합은 저자의 논점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저자는 멜기세덱을 모형론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멜기세덱'과 '살렘'이라는 히브리 이름들의 메시아적 의미, 즉 '의의 왕'과 '평강의 왕'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으로서의 멜기세덱을 그 왕국의 특징이 의와 평강인 왕적-메시아의 모형으로 제시한다.

4-10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본 단락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모형인 멜기세덱이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며, 따라서 그는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멜기세덱의 우월성은 다음 세 가지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던 데 반해 레위적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참 왕이고 참 선지자이며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07

금요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히7:11-19

새찬송가 302장

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고

19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씀 암송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히7:19)



11-12절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저자는 보다 우월한 반차에 속한 제사장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는 이 조건절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제사장직에 있어서 '온전함'은 기대되어야 할 목표이다. 두 번째, 하지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12절에서는 아론적 제사장직과 '율법'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대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론적 제사장만이 아니다. 아론적 제사장직은 모세 율법 하에서 제정된 것이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제사장직 내의 변화는 그와 더불어 율법 내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아론적 제사장직이 일시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율법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13-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14절은 '왜냐하면...분명히 때문이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느 지파에 속한 분인지에 관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14절은 전체적으로 13절의 진술이 역사적 사실로 판명되었음을 입증해줄 뿐 아니라 13절이 진술한 바에 부합한 자는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규명해 준다.

15-19절 더욱 분명하도다

제사장직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리는 레위적 제사장직과는 전혀 다른 기반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권리는 지파적 자격 조건을 뛰어넘은 본래적인 권리로서 족장 시대의 한 신비스러운 인물 가운데서 그 모형을 찾아볼 수 있다.

18-19절에는 두 대조적인 언급들이 삽입구적인 설명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08

토요일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이루셨음이라

히7:20-28

새찬송가 303장

20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으로되

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27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이루셨음이라

28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7:25)



20-22절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제사장 직분과는 달리 맹세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제시된다. 하나님의 엄숙한 임명과 예수님의 제사장적 희생(9:15, 13, 20)은 인간을 구원하는 새로운 방식이 완전한 효력을 얻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히브리서에서 17번 사용되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며 8-9장의 논의를 예고한다.

28절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신 규범으로 십계명이 중심되는 모세오경(토라)을 가리키지만 구약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제사의식이나 사회 규범을 포함하여 선민으로서의 윤리성을 강조한다. 율법 제정의 근본적인 목표는 여호와 경외와 성결이라고 할 수 있다.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목상하며 살아갑시다.

09

주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8:1-13

새찬송가 91장

- 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 2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 3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 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 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 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 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 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 9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 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ی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 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말씀 암송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8:6)



5절 모형

똑같은 모양의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 원형을 그대로 본 따서 만든 것을 말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서의 제사제도는 이후 하늘나라에서 행할 예배의 모형이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양의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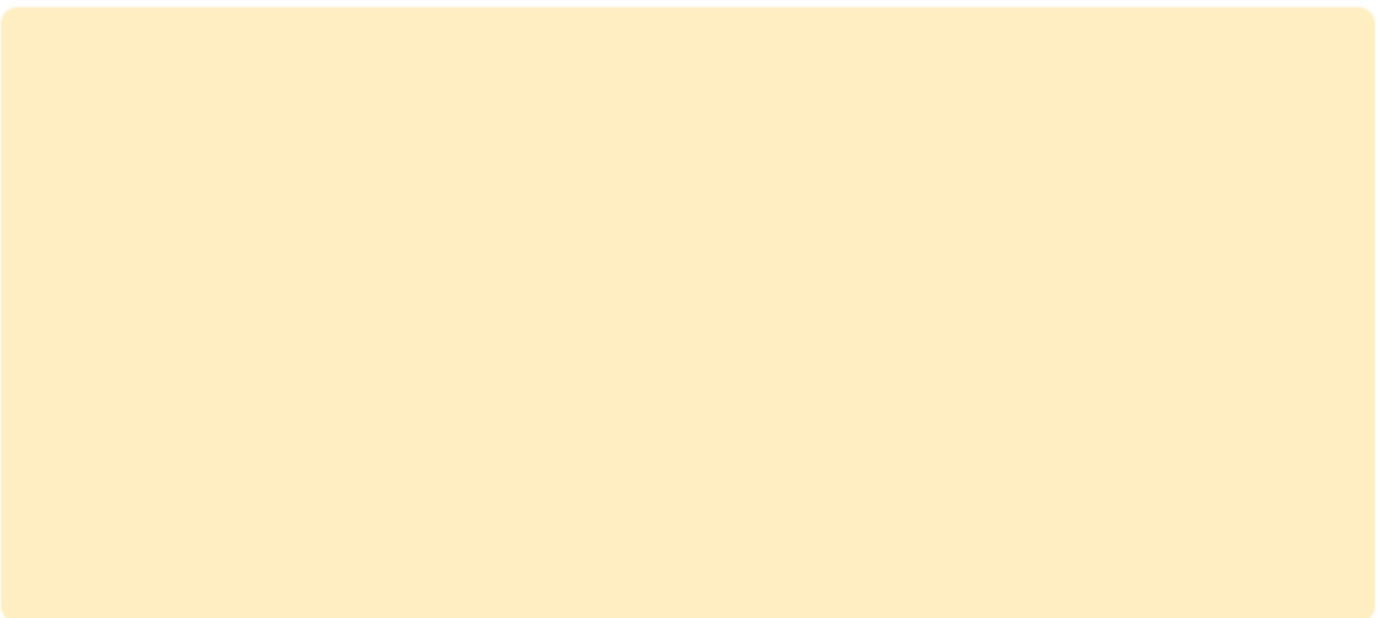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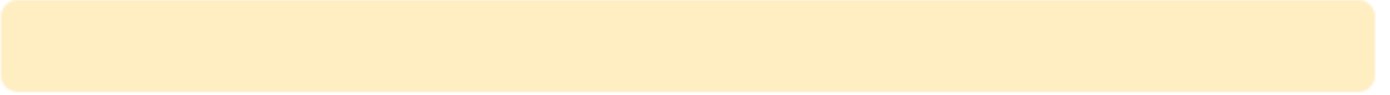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6절 증보자

서로 대립되어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로 도모하는 존재로,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증보자 역할을 했고, 완전한 증보자인 메시아를 소원했다(사11:1). 한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증보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완벽히 감당하셨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주의 증보사역에 의지해서 상달된다(요15:16, 1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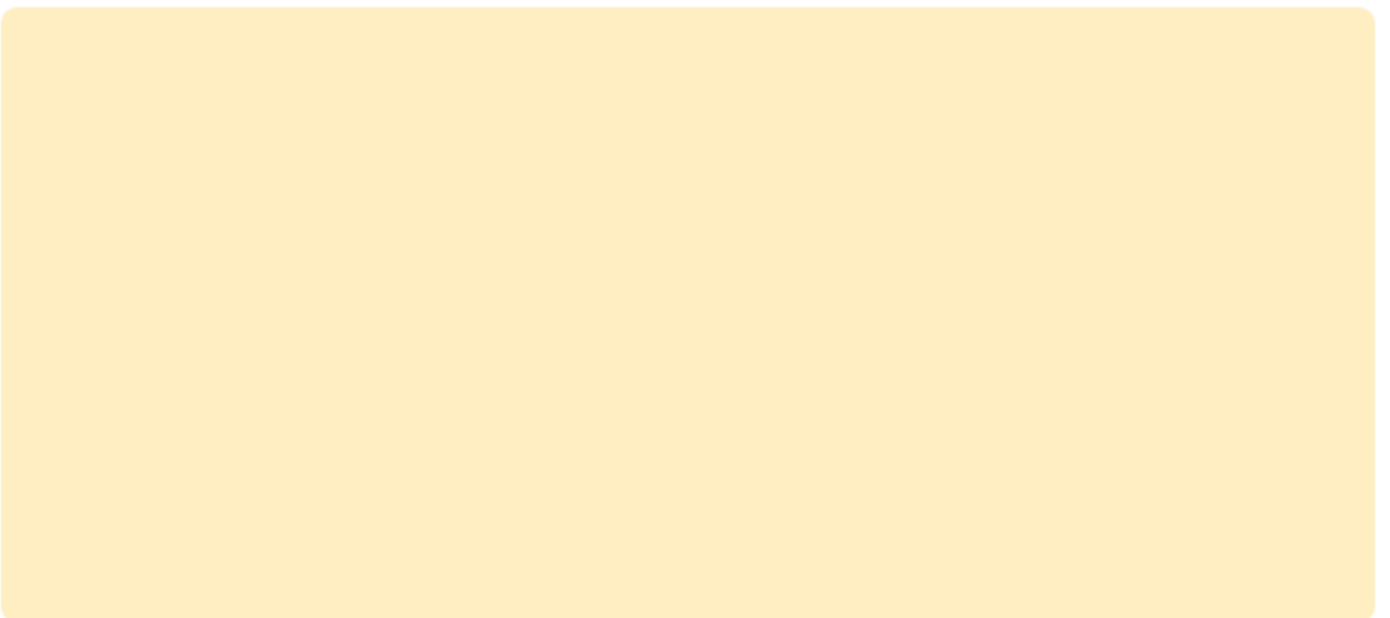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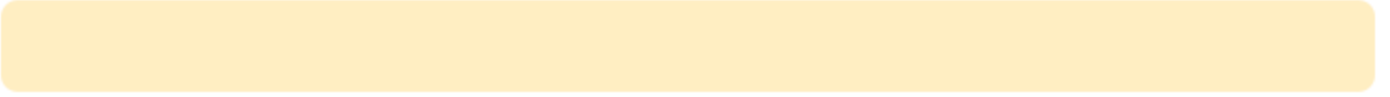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증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로 살아갑시다.

〈설교 노트〉



〈설교 노트〉



10

월요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9:1-12

새찬송가 304장

- 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 4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 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 8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 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 암송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12)



9절

성소와 지성소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거리는 인간의 문제를 드러낸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죄인의 문제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씌워 그 짐승을 잡는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사 드리는 자로서의 심령이다. 신령과 진정이 없다면 공허한 형식일 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불행히도 형식이 앞서고 내용은 맞혔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심이 되는 때를 기다려야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정죄의 마음을 뿌리치고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11

화요일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9:13-22

새찬송가 384장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 이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5절 속량

이 시는 거대한 물결, 위풍당당한 백향목, 광대한 사막에서도 나타나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한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천둥이 울리는 듯한 그분의 음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18회, '여호와의 소리'는 7회 나온다. 이 시는 28:1의 다윗의 간구(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에 대한 응답이다. 또한 이 시가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는 북쪽의 헤르몬 산(6절-시론)으로부터 남쪽의 가데스 광야(8절)까지 거의 가나안 땅의 전역을 아우른다.

19절 우슬초

박하과의 향기 좋은 약용 식물로 거룩한 예식, 즉 정결 의식 때 물이나 피를 적서 뿌리는 도구로 사용했다. 출12:21-22에서 출애굽 직전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이에 대한 첫 기록이다. 이후 구약시대에 유월절 예식이나 각종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다. 또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의 본질이 나병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슬초를 언급하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로마병정이 신포도주를 적신 천을 우슬초에 매어 올려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른 입을 적서 주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12

수요일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히9:23-28

새찬송가 428장

-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 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
려고 아니하실지니
-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
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
나시리라

말씀 암송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본문설명

바울은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위해서와 같이 정결케 해야 한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보다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리려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 제물은 반복하여 자주 드리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 번 드리짐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희생이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번이면 모든 것에 족하기 때문에 존귀하고 완전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속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또 죽으시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일까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이성으로도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26절).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그리고 그는 죄 많은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그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셨으므로 이제는 그의 용모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요 극도로 영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13

목요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10:1-18

새찬송가 453장

- 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 2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 3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 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 5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 6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 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 8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 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 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 16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 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 18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암송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10:10)



본문설명

바울은 먼저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는 사실과 실체가 나타났을 때는 그림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그림자를 송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것들은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속한 것들은 그 자체로써 뛰어나며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뛰어난 신성의 실체들입니다.

둘째 이처럼 좋은 것들은 구약에서는 장차 올 것으로 예고되었을 뿐 명백히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러기에 그 시대인들이 충분히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셋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들의 윤곽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아래서 좋은 것들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복음 아래서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용서받은 죄인은 아주 용서받을 것이며, 다만 자신이 여전히 용서받고 있음을 깨닫기 위해 자신의 회개와 믿음을 반복 다짐할 필요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14

금요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히10:19-25

새찬송가 449장

-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 암송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1:25)



본문설명

본문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성소란 지성소를 말하며 또한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화목 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회복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은 본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공동체를 더욱 힘있게 세워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15

토요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10:26-29

새찬송가 257장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히10:4)



본문설명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한 후, 이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경고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구절은 "복음을 들은 후"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은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를 위해서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경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처럼 크므로 이 은혜를 멸시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큰 은혜를 아는 자가 고의가 아니라면 이 은혜를 멸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16

주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10:30-39

새찬송가 354장

-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 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 5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 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 7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 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9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11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 12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 13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 14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 15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 16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 17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 18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
- 19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 20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 21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 22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암송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3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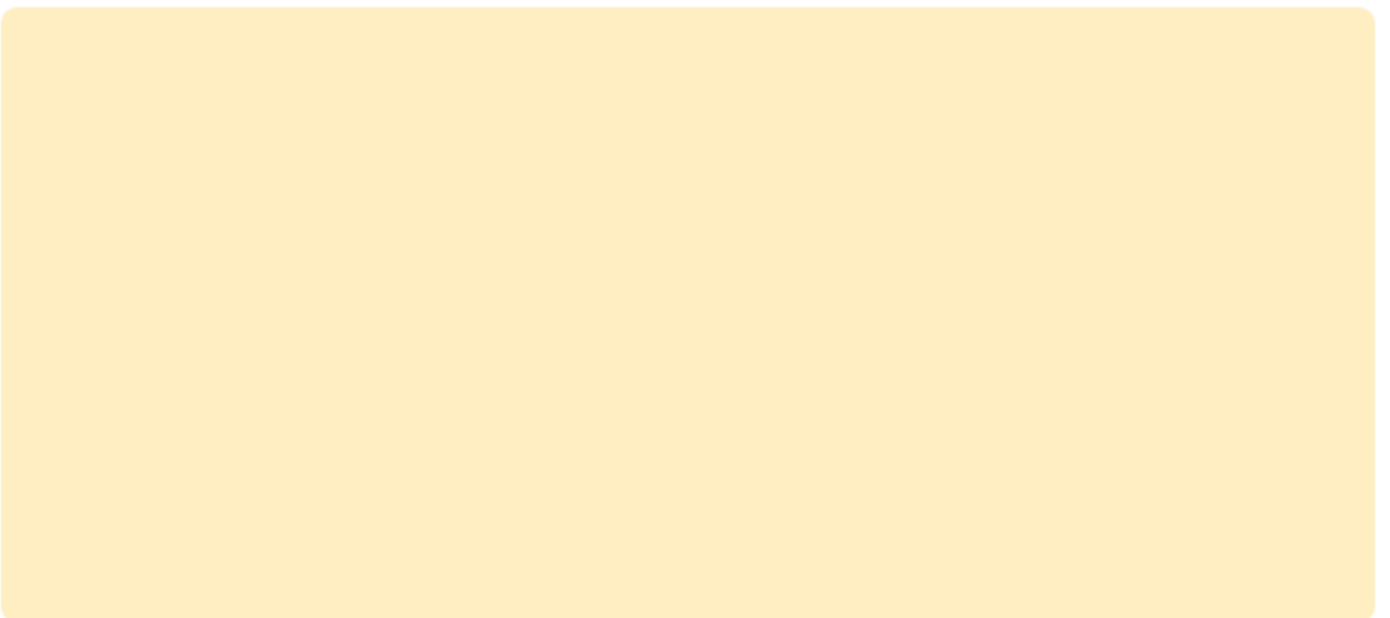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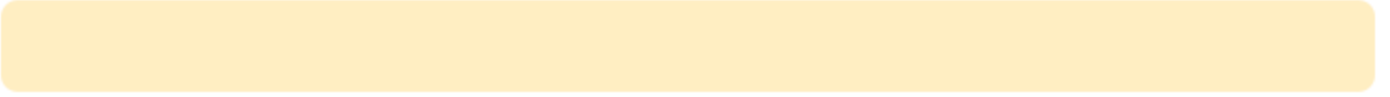
본문설명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였다가 죽을 위기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삼상21:10-15)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하였고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비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던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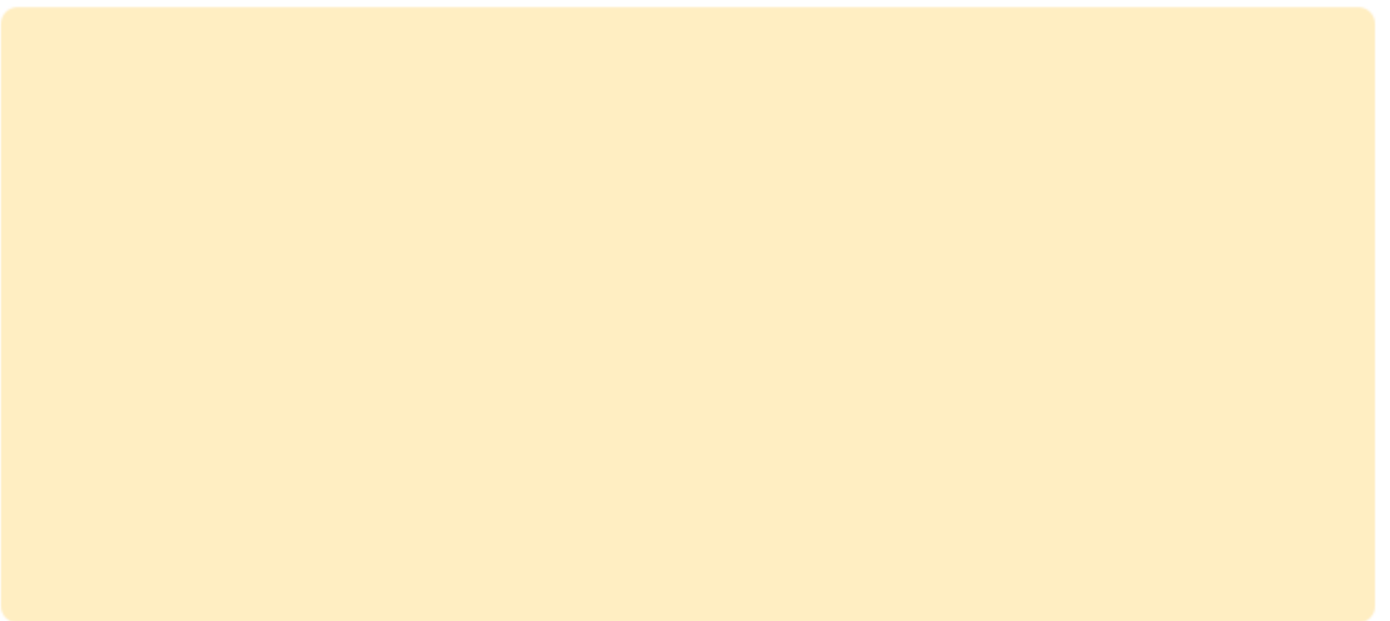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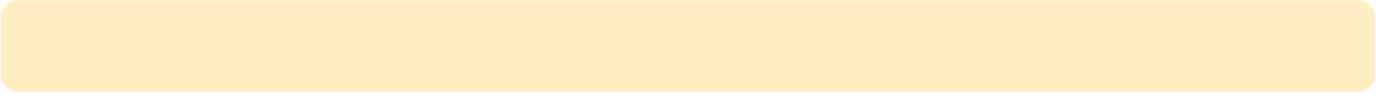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17

월요일

믿음이란

히11:1-7

새찬송가 545장

-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 암송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



본문설명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기록하였으며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11장 바로 앞에서 성도는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간직하여 영혼 구원에 이르는 자임을 밝히며 믿음의 인내를 권면했는데 이 흐름에 이어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며, 선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나 신에 대하여 갖는 신뢰, 진실성, 신용, 보증 등 다양한 용례로 쓰입니다. 먼저 믿음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해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에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며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과 같이 확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믿음으로 보증이 되며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통해 경험한 수많은 선진들은 증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이는 창조론입니다. 누구든지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선진들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린 아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증거를 받은 에녹과 아직 임하지 않은 심판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노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18

화요일

죽장시대 믿음의 선진들1

히11:8-16

새찬송가 351장

-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 12 이렇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 암송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11:16)



본문설명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자신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책임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으나 임신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게된 기적을 체험했던 이유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신뢰할만한) 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않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않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9

수요일

죽장시대 믿음의 선진들2

히11:17-22

새찬송가 359장

-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 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 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 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 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말씀 암송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11:19)



본문설명

믿음의 삶을 살았던 족장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있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인 이삭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삭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멈추게하시고 숫양을 번제로 대신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었고 하나님도 이삭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곱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주었으며,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어긋맞겨 축도하였는데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출애굽 할 것을 예언함을 통해 소망을 하늘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20

목요일

출애굽시대 믿음의 선진들

히11:23-31

새찬송가 365장

- 23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 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 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 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 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암송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7절의 '보이지 아니하는 자'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같이 하였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같이 하였다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즉 어디에서든지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이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을 정확히 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1

금요일

사사시대 이후 믿음의 선진들

히11:32-40

새찬송가 488장

-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 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 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 40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암송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요 11:40)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33,34절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한대기보다는 구약 역사를 이루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성취들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게도 하며, 의를 행하게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등의 성취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러한 경건하고도 놀라운 인들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22

토요일

예수를 바라보자

히12:1-3

새찬송가 240장

-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말씀 암송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벧전 2:21)



믿음의 경주를 이끄는 진정한 선두 주자

11장에 열거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욱 앞서간 사람, 곧 진정한 선두 주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 최고 선두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으며, 또한 승리의 결승점까지 친히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아갈 꺾대를 바라보게 되며,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정한 선두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23

주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12:4-13

새찬송가 292장

-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 암송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신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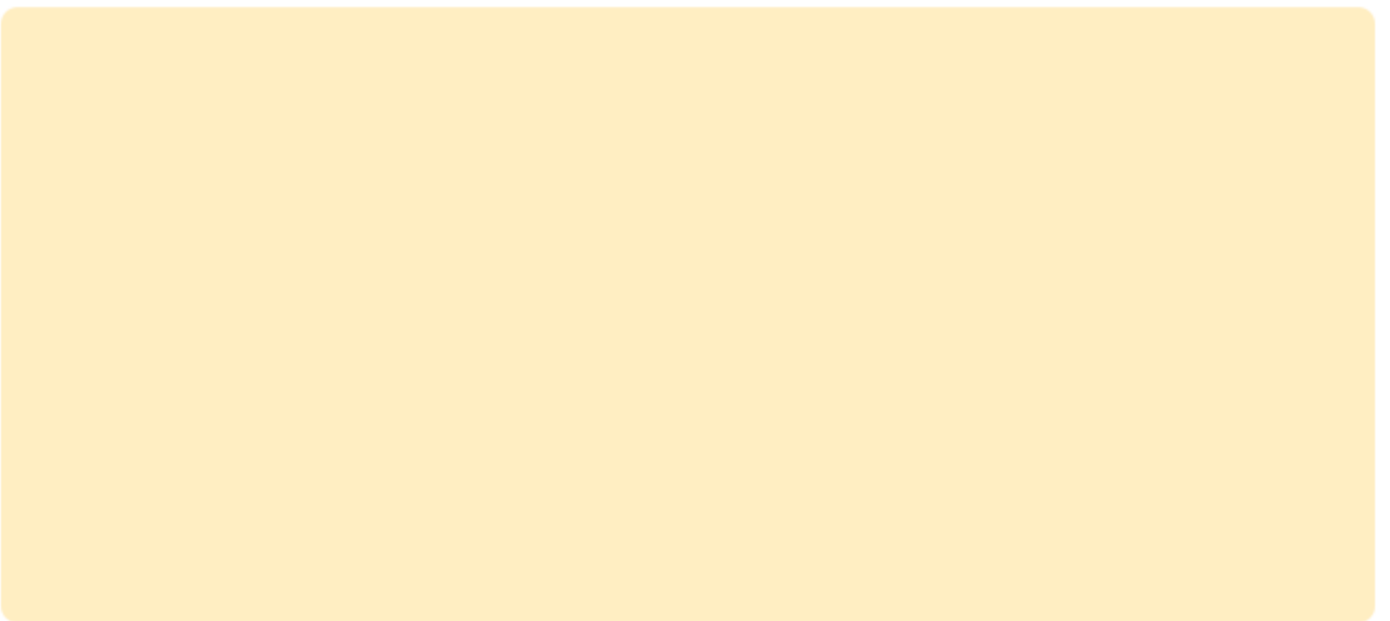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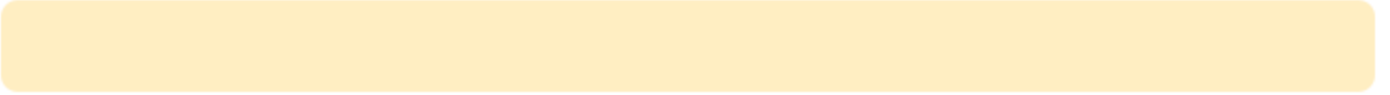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본문설명

5절을 보면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나 꾸지람은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고난'이나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주시는 '책망'등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이나 책망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인자하심과 돌보심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책망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느껴야 합니다. 죄악된 근성으로 인해 고난받고 믿음에서 멀어진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책망받을 때, 그러한 고난과 책망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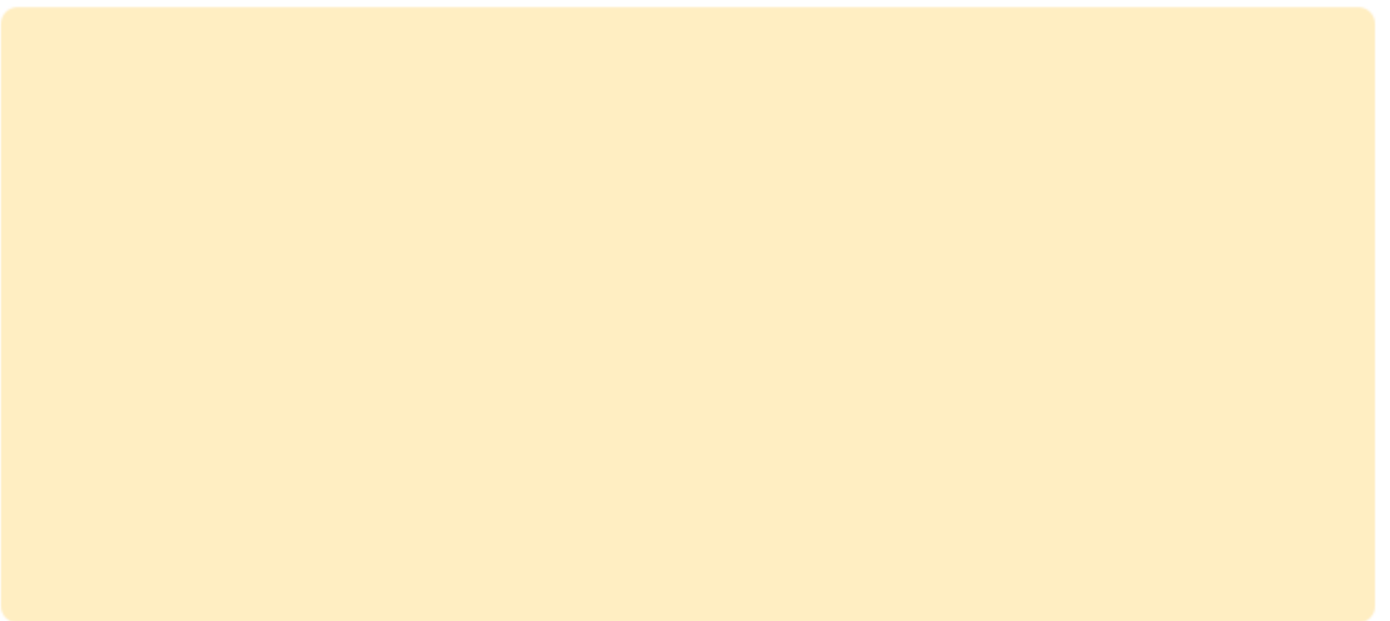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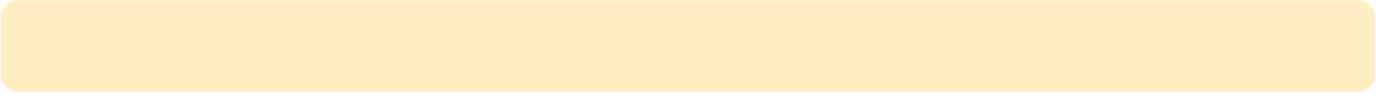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이 있습니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24

월요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12:14-17

새찬송가 542장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되라
(베드로전서 1:15)



성도는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14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좇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 거룩함을 좇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마음에서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 올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며,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힘써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고후 7:1)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뵈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방해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또 그 거룩함을 회복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25

화요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지니

히12:18-29

새찬송가 218장

- 18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칠푼함과 흑암과 폭풍과
19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
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
이라
21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
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 암송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요한복음 10:9)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22-2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있는 자리란 어떠한 곳인가를 직접 말합니다. 그곳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시내산이 아니라 은총과 자비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단 한 명만 올라가서 받은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으로 인정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큰 틈이 완전히 메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당신을 중심으로 존재하게 한 모든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큰 틈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루살렘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천국 문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6

수요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히13:1-6

새찬송가 436장

-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 3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 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말씀 암송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22)



형제 사랑 없는 신앙은 반쪽뿐인 신앙입니다.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성도라면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은 사랑을 삶의 모티브로 삼고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으로 작용하고 사랑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마23:8-9)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며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특히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함으로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을 모티브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나누어봅시다.

27

목요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히13:7-25

새찬송가 93장

-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 8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 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 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 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 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 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 19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 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 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22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 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 24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 25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나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로마서 8:17)



주님으로 인한 고통과 핍박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13절에서는 "능욕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자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란 예수를 따라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욕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쁘고 고상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능욕을 받으며 땀과 피를 흘리는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능욕을 받으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와 피흘리기까지 철저히 싸우며 고군분투 하여 승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대충 예수님께 나아가면 결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일도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싸워서 피도 흘려 보고 예수님 때문에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과 고난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결단 합시다.

28

금요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42:1-11

새찬송가 337장

- 1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 6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 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 10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 암송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시 36:8)



진정한 해갈을 베푸시는 하나님

본문은 시인의 갈급함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사슴은 공격 수단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맹수를 만나면 죽어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자신을 사슴에 비유한 것은 자신이 현재 대적들에게 쫓기어 죽어라 도망치는 자임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이 사슴으로 자신을 비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슴은 생태적으로 갈증을 자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가 간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슴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생수이시기에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곳저곳 헤매면서 하나님 밖에서 목을 축이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슴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해갈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지 목마르거든 당신을 마시라고, 예수님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때 무엇으로 목을 축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경험이 있습니까?

29

토요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43:1-5

새찬송가 197장

- 1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 2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 4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 암송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역대상 29:9)



성도는 하나님으로 기쁨과 소망을 얻습니다.

인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비, 여행, 유희, 만남 등 다채로운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나 반드시 사라지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저 주일 예배 나오고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겁고 행복해 합니다. 무엇보다 그 행복이 인생을 가득 매웁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불행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낙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를 지내 보시다.

30

주일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시44:1-26

새찬송가 382장

- 1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 2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 3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 4 하나님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2)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 5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 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 7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 8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 9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 10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 11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홀으셨나이다
- 12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 13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 14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 15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 16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 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 18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 19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폄되던
- 21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 22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 23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 24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 25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 26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 암송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로마서 11:6)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시인은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라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구원을 어기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라, 선물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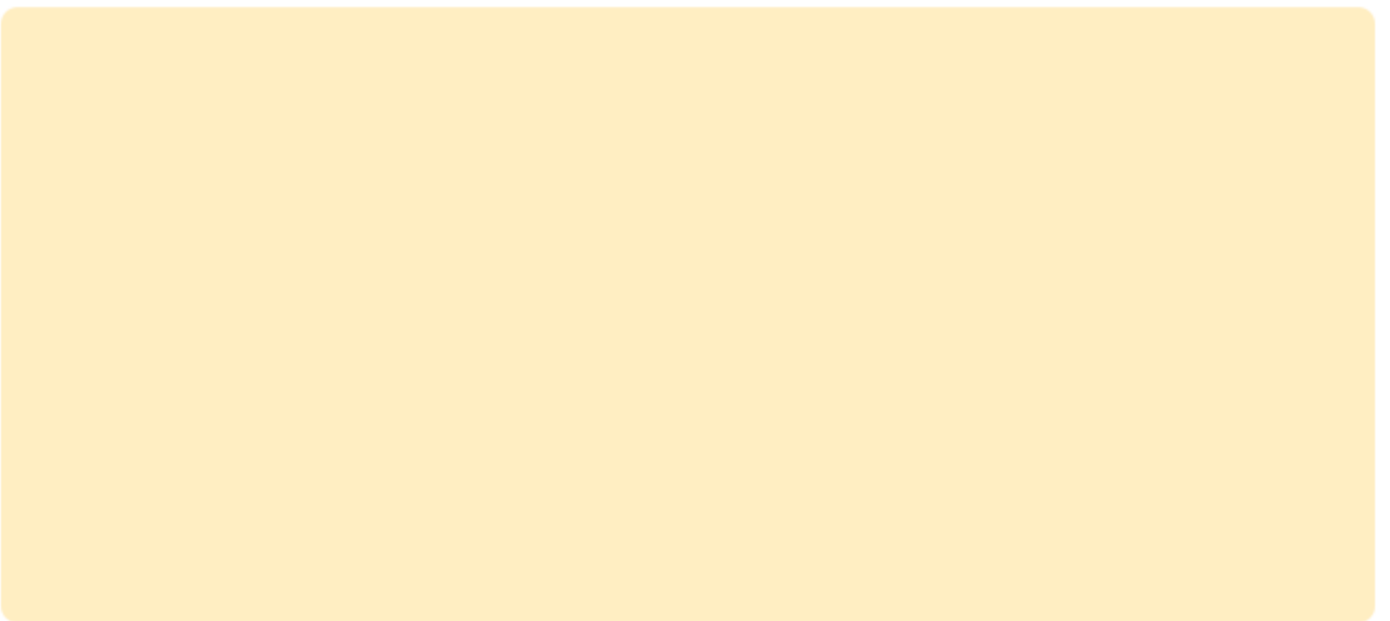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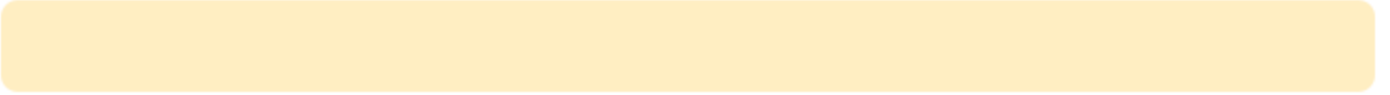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그 은혜를 붙들면 인생과 신앙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나 의로운 용에게 고난이 임했던 것처럼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하지도, 잊으시지도, 마음이 변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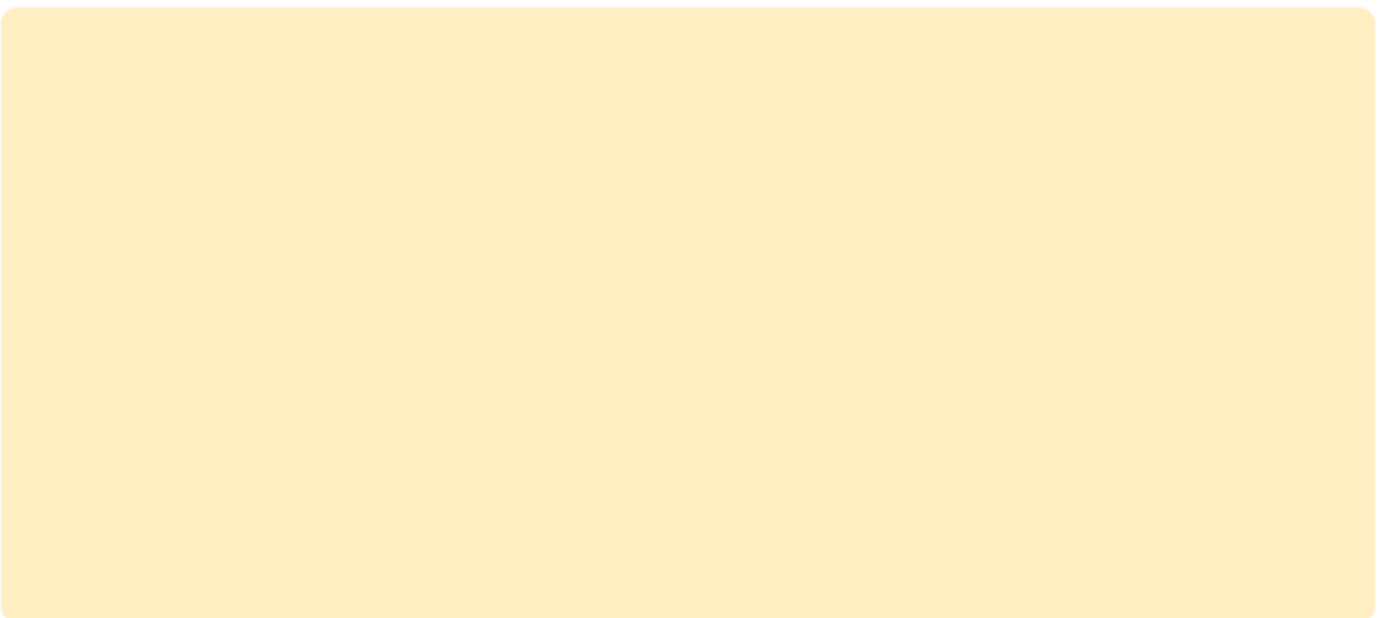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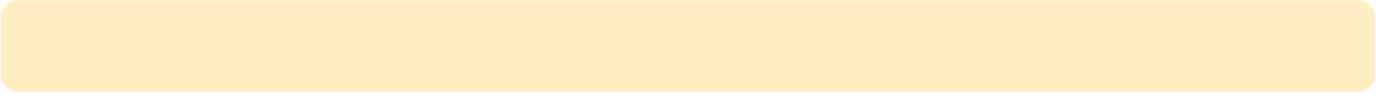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설교 노트〉



〈설교 노트〉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3. 4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한성훈 최청환
| 안광모 박예일
김요한 송주원
손아론 신동재
김충만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